

출애굽기 연대 가설: 아멘호테프 2세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고*

양인철(연세대)

1. 들어가는 말

만약 성서의 저자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파라오의 이름을 명확하게 표기했다면 학자들이 출애굽의 연대를 예측하기가 쉬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임스 호프마이어(James K. Hoffmeier)는 요셉과 모세의 시대에 파라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성서 저자가 초창기 이집트 제18왕조 시대부터 주전 10세기까지 각종 기록물에 파라오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 전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 예를 들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모세 이

* 이 글은 '출애굽기 연대 가설: 아멘호테프 2세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고'를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된 제125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2024.04.26.)에서 제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의 발전을 위해 논찬해 주신 김도형 박사, 방기민 박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1 James K. Hoffmeier, *Israel in Egyp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Exodus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87-88.

야기에서 이집트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열왕기서에서 주전 925년에 르호보암왕 시대에 등장하는 이집트 왕은 이집트 왕 시삭(Pharaoh Shishak)으로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왕상 11:40; 14:26).

따라서 오랫동안 학자들은 고고학 유물과 이집트 역사가 기록된 기록물을 바탕으로 출애굽의 연대를 측정하고,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60년에서 1980년에 이르기까지 올브라이트(W. F. Albright) 학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가엘 야딘(Yigael Yadin)은 메르넵타 비석(주전 1209년)과 이집트 제19왕조 시대 람세스 2세(주전 1279-1213년)에 의해 건축된 람세스 도시(출 1:11, Pi-Ramses; 람세스의 집)와 외래 민족으로서 이집트 왕국을 통치하였던 힉소스 왕조(주전 1650-1550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연대를 람세스 2세의 통치 시기인 주전 13세기를 주장했다.²

반면에 90년대 이후 새롭게 진행된 고고학 발굴을 통해 성서 고고학자인 이스라엘 핑켈슈타인(Israel Finkelstein)과 나답 나아만(Nadav Na'aman)을 비롯하여 이집트 학자 도널드 레드포드(Donald Redford)는 출애굽기의 역사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주장은 출애굽기의 기록물은 출애굽기가 최종으로 편집되어가던 시기인 주전 7세기의 아시리아와 남유다와 이집트 간의 상호 역학적인 국제 관계를 반영한 내용임을 강조하였다.³ 그들의 주장은 이집트학과 성서

2 Yigael Yadin, "The Transition from a Semi-Nomadic to a Sedentary Society in the Twelfth Century B.C.," in *Symposia Celebrating the Seventy-Fif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00-1975)*, ed. Frank M. Cross (Cambridge, MA: ASOR, 1979), 57-68.

3 Israel Finkelstein and Neil A.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New York: Free Press, 2001); Nadav Na'aman, "The Exodus Story: Between Historical Memory and Historiographical Composition," *JANER* 11 (2011): 39-69; Donald B. Redford, *Egypt, Canaan, and Israel in Ancient Tim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1).

고고학의 최근 발굴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이고, 율리우스 벨하우젠 이후 성서비평학에 기반한 성서의 후대 기록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고고학 유물의 발견에 기반하여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집트 탈출의 기억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서의 주요 신학이 되는 구원사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만약 출애굽기의 연대설을 주전 15세기의 이른 연대설로 가정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으로 인한 이집트 제국의 변화를 확인하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본 논문은 출애굽 연대 가설을 주전 15세기 18왕조의 아멘호테프 2세(주전 1427-1400년)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기억에 자리 잡은 출애굽 왕조의 기억은 투트모세 3세와 그의 후계자 아멘호테프 2세에 의한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기억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먼저 연대 측정과 관련된 성서 본문(삿 11:26; 왕상 6:1)을 분석하고, 출애굽의 연대에 대한 주전 15세기설과 13세기설과 미니멀리스트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미니멀리스트가 주장한 바 출애굽 전승에 대한 기억이 주전 7세기의 이집트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담긴 전승이라는 주장과 달리, 주전 15세기 이집트 왕조와 연관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이집트 역사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15세기 가설을 주장한 더글라스 페트로비치(Douglas Petrovich)의 학설⁴을 참조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유일신 야훼를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는 주전 15세기 이집트 민족에게 크나큰 트라우마를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억은 아멘호테프 2세의 후손인 아멘호테

4 Douglas Petrovich, "Amenhotep II and the Historicity of the Exodus-Pharaoh," *The Master's Seminary Journal* 17/1 (Spring 2006): 81-110.

프 4세, 즉 아케나톤 시대에 유일신 사상이 형성된 계기를 만들었을 것이다.⁵

2. 출애굽기 연대 가설

1) 주전 15세기 출애굽 연대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왕상 6:1)

열왕기상 6장 1절은 출애굽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구절이다. 솔로몬 재위 4년에 이루어진 성전 봉헌식은 맥시멀리스트와 미니멀리스트 모두 주전 966년으로 보고 있다.⁶ 주전 966년의 시기는 이스라

5 많은 현대 학자들은 주전 13세기 출애굽기 연대설을 선호하며, 이집트 아케나톤이 아톤 신앙을 숭배하는 유일신 신앙이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그의 저서 '인간 모세와 유일신론'에서 모세가 유일신 태양을 섬겼던 이집트 파라오의 열렬한 추종자로 보았다. 프로이트는 파라오가 죽은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서 유일신 사상을 재건한 자로 보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 이은자 역 (서울: 부북스, 2016). 안 아스만 또한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 아케나톤이 유대교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안 아스만, 『이집트인 모세: 서구 유일신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억』, 변학수 역 (서울: 그린비, 2018). 기존 출애굽 연대설에 대한 한국 학자의 연구로 김성 박사의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김성, "첫 번째 "역사적" 출애굽: 출애굽의 연대 추정과 힉소스 추방", 『구약논단』 1.1 (1995), 27-55; 김성, "그리스의 출애굽 전승과 역사적 배경", 『구약논단』 19.4 (2013), 290-317.

6 맥시멀리스트는 성서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최대한 성서의 기록물과 성서 외 기록물의 역사성을 일치하고자 하는 학자들이다. 대표적인 학파는 올브라이트 학파라 할 수 있다. 미니멀리스트는 성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서 외 기록물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록만 역사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필립 데이비스(Philip R. Davies), 레스터 그라베(Lester L. Grabbe), 닐 램쉬(Niels Peter Lemche) 등이 있다.

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480년이 지난 시기를 의미한다면, 출애굽의 연대는 주전 144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연대기를 기초로 이집트 왕조를 예측하면, 아멘호테프 2세의 아버지인 투트모세 3세(주전 1479-1425년)의 시기를 출애굽의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열왕기상 6장 1절의 출애굽 연대는 사사기 11장에서 길르앗 출신 사사 입다가 암몬 왕에게 증언하였던 내용과도 일치한다. 사사기 11장 26절에서 사사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스라엘 영토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 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삼백 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상 6장 1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출애굽이 주전 1446년에 발생하였다면,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치르고 나서 진행된 시기인 주전 140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사 입다의 시기는 가나안 정복 이후 300년이 지난 대략 주전 110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전 15세기 출애굽 연대설 주장은 이집트 18왕조에 대한 기록과도 일치한다. 로렌스 게라티(Lawrence T. Geraty)는 출애굽기 1장의 남아살해 명령을 내린 파라오는 투트모세 1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그의 딸 하트셉수트 여왕(Hatshepsut)이 아기 모세를 입양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한다.⁷ 게라티는 아멘호테프 2세가 그의 아버지 투트모세 3세가 죽은 이후 아시아에 군사행동을 감행하여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수많은 노예들을 이집트로 끌고 온 것은 히브리 노예들이 일으킨 출애굽 사건

7 Lawrence T. Geraty, “Exodus Dates and Theories”, T. E. Levy, T. Schneider, and W. H. C. Propp, eds., *Israel's Exodus in Transdisciplinary Perspective: Text, Archaeology, Culture, and Geoscience* (Heidelberg: Springer, 2015), 4.

에 대한 보복으로 보았다.⁸ 예를 들어, 아멘호테프 2세의 멤피스와 카르낙 비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33,600명의 하피루(Apiru), 15,200명의 샤푸(사막에 거주한 자들), 36,000명의 시리아인들 …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합쳐서 총 89,600명을 포획하였다.”⁹ 또한, 게라티는 아멘호테프 2세의 아들이 투트모세 4세이고, 투트모세 4세의 꿈의 비석(Dream Stele of Thutmose IV)에서 투트모세 4세가 아멘호테프 2세의 장자가 아닌 것으로 볼 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장자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 투트모세 4세가 아멘호테프 2세의 뒤를 이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전 15세기 출애굽 연대설을 지지하는 또 다른 고고학 기록은 1888년에 카이로 남쪽 300km에 위치한 고대 아케타텐(Akhetaten) 유적지인 Tell el-Amarna에서 발견된 아마르나 문서(Amarna Letters)이다.¹⁰ 고대 아케타텐은 아케나텐(Akhenaton)왕으로 알려진 아멘호테프 4세(주전 1352-1336년) 때의 수도이며, 이곳에서 아카드어로 기록된 총 382개의 토판이 발견되었다. 이 문서에는 아케나톤왕이 가나안 족속들의 명단과 더불어 히브리 민족과 관련된 하피루(Apiru)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에서 게셀(Gezer)의 통치자가 이집트 왕에게 탄원하면서 “하피루”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침략하는 행위를 소개하고 있다.¹¹ 물론, “하피루”가 히브리 민족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답 나아만(Nadav Na'aman)은 “하피루”가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라기보다는 팔레스타인에서 정착하지 못한 유목민이며, 지지기반이 약한 사회계층을 지

8 Geraty. 윗글, 4.

9 James K. Hoffmeier, “The Exodus and Wilderness Narratives”, B. T. Arnold and R. S. Hess, eds., *Ancient Israel's History: An Introduction to Issues and Sourc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56.

10 Iain W. Provan, V. Philips Long, and Tremper Longman III,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3), 227-231.

11 윗글, 228.

칭한다고 보았다.¹² 어쩌면 주변 민족들이 표현한 하피루는 주전 15세기에 아직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출애굽 여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주전 15세기 출애굽 연대설에 대한 마지막 가설은 지중해 연안의 테라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된 생태계의 변화와 관련된 주장이다. 이집트 학자 한스 괴딕(Hans Goedicke)은 주전 1450년경 그리스의 산토리니섬(Santorini), 고대에는 테라(thera)라 불린 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과 주전 15세기 출애굽 연대설을 연관시킨다.¹³ 그는 이 화산 폭발로 발생한 파도와 화산재로 인해 지중해 남쪽 연안에 위치한 이집트 군부대가 파괴되었고, 이 여파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전염병도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2)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앞서 소개했던 올브라이트 학파에 속한 학자들이다. 그들은 성서의 기록을 가능하면 고고학적 자료와 일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람세스 2세의 아들 메르넵타 왕(주전 1213-1203년)이 세운 메르넵타 비문(Merneptah Stela)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기로 추정하여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열왕기상 6장 1절과 사사기 11장 26절에 대한

12 Nadav Na'aman, "Habiru and Hebrews: The Transfer of a Social Term to the Literary Sphere",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45:4 (1986), 271-288.

13 Hans Goedicke, "The Chronology of the Thera/Santorini Explosion", *Ägypten und Levante* 3 (1992), 60-61. 한스 괴딕의 주장은 최근 현대학자들이 테라에 위치한 화산재에 대한 탄소 측정 결과 주전 1645년~1600년 경으로 예측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테라에 대한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Colin Humphreys and Lee W. Humphreys, *Miracles of Exodus: A Scientist's Discovery of the Extraordinary Natural Causes of the Biblical Stories*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2003), 245.

해석이다.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열왕기상 6장 1절의 480년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대략 300년을 상징하는 숫자로 해석한다. 앞서 분석한 대로 주전 966년 솔로몬 재위 4년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480년이 지난 시기이다. 이 시기대로 추정하면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존 브라이트(John Bright)는 열왕기상 6장 1절의 480년은 문자 그대로 48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세대로 보고 있다.¹⁴ 그리고 그는 한 세대의 연한을 40년이 아니라 25년 정도로 본다. 만약 12번의 세대를 숫자로 환산하면 대략 300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시기는 람세스 2세 시대인 주전 1267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사사기 11장 26절에 대한 해석에서도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00년으로 주장하는 것은 암몬 자손에게 대항하기 위해 입다가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주장한다. 앤드류 스타인만(Andrew Steinmann)은 사사 입다가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어림잡아 300년으로 이야기한 것이며, 입다의 정치적인 선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 있다.¹⁵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을 밀곰이 아니라 그모스로 주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입다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성서 외 기록물로 메르넵타 비석을 성서와 고고학을 일치시키는 주요 기록물로 보고 있다. 플린더스 페트리(Flinders Petries)가 이집트 남부 테베에 위치한 왕

14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4th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0). 123.

15 Andrew E. Steinmann,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Book of Judge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8:3 (2005): 499.

가의 계곡에서 발견한 메르넵타 비문은 메르넵타왕이 재위 5년의 시기(주전 1209년 혹은 1208년)에 리비아에 승리하면서 찬양하는 기록물이다.¹⁶ 이 기록물에서 메르넵타는 다음과 같이 그의 승리를 기술하고 있다.

테헤누(Tjehenu: 리비아인)는 정복당하였고, 하티(Khatte: 히타이트인)는 평화로웠다.

페카나안(가자)은 매우 심하게 정복당하였고, 아스글론을 가져왔고, 게셀(Gezer)은 포획하였다.

야노암은 파괴된 도시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은 발가벗겨져서, 완전히 씨앗을 소실하였다.

카루는 이집트를 위한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땅은 함께 평화롭게 되었다.¹⁷

주전 13세기에 세워진 메르넵타 비석은 주전 13세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산지에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활동했다는 증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람세스 2세 시기를 출애굽 시기로 보는 근거는 출애굽기 1장 11절에 기록된 도시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¹⁸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호프마이어는 라암셋 도시 건설은 람세스 2세 시대에 있었던 Pi-Ramesses 도

16 Lester L. Grabbe, *Ancient Israel: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 (New York: T&T Clark, 2007), 77.

17 윗글, 77.

18 비돔은 아툼(Atum) 신의 집(Pi)을 의미한다.

시 건축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¹⁹ Pi-Ramesses의 “Pi”는 “집”을 의미하며, 파피루스 348은 람세스 2세 시기에 람세스 집을 건축하기 위해 하피루(Apiru)에게 돌을 굴리는 강제노동을 시킨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²⁰ 이 기록은 1990년대 Tell el-Daba의 발굴 작업에서 발견된, 람세스 2세에 의한 Pi-Ramesses의 거대 진흙 벽돌 건축물의 내용과 일치한다.²¹

또한,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은 힉소스 왕조(주전 1700-1550년)의 시기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다. 주후 1세기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는 주전 3세기 이집트 제사장 마네토(Manetho)의 이집트 역사(Aegyptiaca)를 인용하면서, “목자의 왕”을 뜻하는 힉소스를 “우리의 조상”으로 인식하였다.²² 이집트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힉소스와 연결하는 데 있어서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출애굽기 12장 40-4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본문을 근거로 하여 주전 1267년에 430년을 더하면 대략 주전 1707년이며, 힉소스 왕조의 초창기 시기와의도 잘 맞는다.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은 고고학자들이 주전 2000년부터 주전 1300년 사이 고대 에돔과 모압 지역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하여 거주민들의 흔적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가설이다.²³ 1930년대에 넬슨 글루엑(Nelson Glueck)은 요단 서편 지역을 발굴하면서, 주전

19 James K. Hoffmeier, “The Exodus and Wilderness Narratives”, 57.

20 윗글, 57.

21 윗글, 58.

22 김성, “‘외국 땅의 통치자들’: 힉소스(Hyksos)에 관한 역사 전승 연구”, 『서양고대사연구』 16:2 (2005), 3.

23 J. Maxwell Miller and John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Westminster, 2006), 54-55.

1300년 이전에는 에돔과 모압과 같은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²⁴ 이 주장을 근거로 할 때, 주전 1300년 이후에야 에돔과 모압과 같은 나라가 등장하였고, 출애굽 이후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나라와 싸울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3) 미니멀리스트 학자들의 주장

주전 15세기 출애굽 연대설과 13세기 출애굽 연대설을 모두 부인하는 소위 미니멀리스트 학자들은 출애굽기의 편집 시기와 관련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핑켈슈타인(Israel Finkelstein)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전면 부정한다. 그는 주전 13세기 파피루스 기록물에서 요새에 근무하던 지휘관들이 외국인의 이동을 아주 상세하게 관리 감독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²⁵ 그리하여 그는 만약 어떤 집단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집트를 탈출하고자 한다면, 델타 지역에 근무하던 이집트 군대에 의해 쉽게 잡힐 수도 있으며, 북쪽 시나이 반도와 가나안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집트 전사들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²⁶ 그의 주장은 이집트 학자 도널드 레드포드(Donald Redford)의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 레드포드는 출애굽기에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은 주전 7세기 이집트 제26왕조인 사이테(Saite)의 통치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²⁷ 즉, 핑켈슈타인은 요시야 통치 시기에 이집트 사이테 왕조가 앗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지리학적 지배

24 윗글, 54.

25 Israel Finkelstein and Neil A. Silberman, *The Bible Unearthed* (New York: Free Press, 2001), 59.

26 윗글, 61.

27 윗글, 65-66.

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집트의 정치적 압제와 견제가 출애굽기의 기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²⁸

나답 나아만(Nadav Na'aman)은 핑켈슈타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로날드 헨델(Ronald Hendel)의 문화 기억 개념을 차용하여, 출애굽기의 이집트 탈출에 대한 기억이 페르시아 시대 때 출애굽기 전승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⁹ 나아만은 주전 13-12세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가나안에 대한 통제와 그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³⁰ 나아만은 이 기억과 관련된 전승들은 주전 7세기에 처음 편집되었고, 유다가 아시리아 제국 하에 있을 때 이 전승은 그들의 역사적 삶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³¹ 그리고 이후 이집트 제26왕조 시기(주전 664-525년)의 이집트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제사장 학파에 속한 6세기 후반 편집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출애굽기가 편집되었다고 주장하였다.³²

핑켈슈타인과 나아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문화적 기억은 그들이 주전 13세기와 12세기에 걸쳐 가나안 지역에서 경험했던 이집트 통치권에 의한 고통과 해방에 대한 기억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전승들이 후대, 특히 이집트 26대 왕조인 사이테(Saite) 시대 때 출애굽기가 기록되면서 그 내용과 전승들이 그 시대의 역사적 자료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이집트 학자 얀 아스만(Jan Assmann)이 주장했던 “공동체의 기억은 정체성을 만들어

28 윗글, 69.

29 Nadav Na'aman, "The Exodus Story: Between Historical Memory and Historiographical Composition",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s* 11 (2011), 39-69.

30 윗글, 65.

31 윗글, 67.

32 윗글, 68.

내고, 그들의 기억은 과거에 대한 사실을 기술하기보다는 그들의 기억이 기록된 현실을 반영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³³ 아스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개인이 경험한 기억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재해석되는 과정으로 발전된다고 보았다.

4) 이스라엘 민족의 탈출과 아멘호테프 4세(아케나톤)

앞서 소개한 대로 미니멀리스트 학자들은 주전 15세기 출애굽 가설과 주전 13세기 출애굽 가설을 모두 부인하고, 마치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신화적인 전승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의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의 기억은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실제 경험하기보다는 주전 13-12세기에 이집트의 통제권 아래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이 반영된 전승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전승인 원 신앙 고백인 신명기 26장 5절 하반절부터 9절에 기록된 역사 전승 또한 주전 7세기 아시리아 통치 시기에 기록된 전승이다. 그러나 폰 라트가 강조한 대로 구약신학의 “구원사”의 핵심이 되는 신앙고백이 기록된 신명기 26장은 모세오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³⁴ 그리고 이 신앙고백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통으로 기억하고 있는 최초의 기억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구원사를 담은 고백이다. 이 변함없는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이

33 Jan Assmann, *Religion and Cultural Mem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4.

34 Gerhard von Rad, “The Form-Critical Problem of the Hexateuch” (1938), repr., E. W. Trueman Dicken, ed., *From Genesis to Chronicles: Explorations in Old Testament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2005), 3-7.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서 일하면서 가꾼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고백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유한 기억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애굽 기억은 주전 15세기 이집트 왕 아멘호테프 2세 시기에 발생하였고, 그들의 탈출은 아멘호테프 2세의 통치와 그의 후손인 아멘호테프 4세 시기에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스만은 모세가 헬리오폴리스 출신의 이집트 제사장이며, 태양숭배를 했던 아멘호테프 4세(아케나톤)의 유일신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자로 보았다.³⁵ 아스만은 프로이트의 저서 “모세와 유일신론”을 참조하면서, 태양 중심의 유일신론을 신봉하였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인 이후, 모세의 신을 자신들이 추종했던 야훼라는 활화산에서 임재하는 신의 이미지와 동화시켰고, 이러한 그들의 트라우마가 새로운 유일신 종교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³⁶ 곧, 아스만의 주장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는 모세는 역사적 모세가 아니라 기억된 모세라 할 수 있다. 그 기억된 모세의 흔적에서 아스만은 아케나톤의 유일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다.³⁷

그러나 역으로 주전 15세기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호테프 2세의 가나안 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봉하였던 유일신 사상이 아케나톤의 유일신 사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

35 안 아스만, 「이집트인 모세: 서구 유일신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억」, 변학수 역 (서울: 그린비, 2018), 75.

36 윗글, 290, 303.

37 다른 한편으로 현대 학자들은 유일신 사상이 포로기 시대에 발전했으며, 제2이사야에 처음으로 유일신에 대한 강조가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유일신교 사상(Monotheism)은 17세기 이후의 개념으로 헨리 모어(Henry More)가 처음으로 만든 개념이다. 처음 모어가 유일신교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다신론(Polytheism)에 반대하기보다는 무신론(Atheism)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유일신교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나단 맥도널드(Nathan MacDonald)의 설명을 참조하라. Nathan MacDonald, “The Origin of Monotheism,” in *Early Christian and Jewish Monotheism*, ed. Loren T. Stuckenbruck and Wendy E. North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2004), 204-215.

성도 있지 않을까? 더글라스 페트로비치(Douglas Petrovich)는 출애굽 시기를 주전 15세기 아멘호테프 2세 시기로 주장하였고, 모세를 입양한 파라오의 딸을 하트셉수트 여왕(주전 1507-1458년)으로 추정하였다. 그의 가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투트모세 1세의 딸 하트셉수트 여왕은 아기 히브리인 모세를 입양했고, 그에게 이집트의 다신론적인 문화 유산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인 모세는 그의 유대 공동체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유일신 야훼를 경험하였다(출 3:14).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간 사이 투트모세 2세는 왕위에 올랐지만,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인 투트모세 3세를 대신 하여 하트셉수트 여왕은 2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였다. 그녀가 죽은 이후 투트모세 3세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트셉수트 여왕과 달리 폭정을 주도하였고, 하트셉수트 여왕이 기록된 모든 문헌을 파괴하였다.³⁸ 이후 야훼를 경험한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의 아멘호테프 2세의 통치하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켰다. 모세의 탈출에 대한 기억은 이집트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다. 이 기억을 지우기 위해, 아멘호테프 2세는 카르낙에 있던 하트셉수트 여왕의 기념비를 온전히 제거하였다.³⁹ 또한, 아멘호테프 2세는 그의 두 번째 가나안 전쟁에서 3,600명의 하피루를 포획하면서, 그가 겪었던 치욕을 없애고자 부단히 노력했다.⁴⁰

페트로비치의 주장대로 아멘호테프 2세 시기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이집트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면, 그 기억이 그의 후손인 아멘호테프 4세에까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보

38 Douglas Petrovich, "Amenhotep II and the Historicity of the Exodus-Pharaoh", 107.

39 윗글, 109.

40 윗글, 110.

았듯이 많은 성서학자는 고고학 발굴물과 종교사의 발전에 근거하여, 유일신 사상의 유래가 아케나톤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가정은 대부분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과 늦은 출애굽 연대설에 기반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전 15세기 출애굽 연대설에 따라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이 아케나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유일신의 기원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즉, 아케나톤에 의해 유일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되었다기보다는 아케나톤의 사상적 성립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아멘호테프 2세가 없애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은 그의 후손 아멘호테프 4세 시기에 태양신 아케나톤을 섬기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아멘호테프 4세는 아문 중심의 다신교 신앙을 포기하고, 태양신 아톤만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도입하였고, 그의 이름조차 “아톤에게 이로운 자”를 의미하는 아케나톤으로 개명하였다.⁴¹ 앞서 소개한 대로 아케나톤 시대에 기록된 아마르나 문서는 하피루, 즉 히브리 민족과 여러 가나안 민족 간의 대결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물을 의지한다면, 아케나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정복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주전 15세기 출애굽 연대설과 주전 13세기 출애굽 연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였고, 그들의 주장에 반하여, 미니멀리스트 학자들은 출애굽기가 주전 13-12세기 가나안 지역에 이미

41 아스만, *윗글*, 272.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통치의 압박과 자유를 다룬 내용을 담고 있었고, 출애굽기의 기록물은 출애굽 당시의 내용보다는 출애굽기가 기록된 주전 7세기와 포로기 이후 제사장 학파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러 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고고학적 발굴의 최신 내용을 반영하면서 주장하기에, 그들의 주장은 때로는 성경의 내용을 지지하고, 때로는 성경의 기록에 반하는 주장을 펼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기억이 담긴 신앙고백(신 26:5b~9절)은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역사를 기록한 증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고백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통으로 기억하고 있는 최초의 기억이다. 이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구원사를 담은 고백이다. 이 변함없는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서 일하면서 가꾼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고백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유한 기억인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애굽 기억은 주전 15세기 이집트 왕 아멘호테프 2세 시기에 발생하였고, 그들의 탈출은 아멘호테프 2세의 통치와 그의 후손인 아멘호테프 4세 시기에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15세기 출애굽 연대설을 지지하며, 이집트에서 탈출한 시기는 아멘호테프 2세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아멘호테프 2세가 하트셉수트 여왕에 대한 기억을 제거하고자 여러 기념물을 제거하였고, 수많은 군사 작전을 가나안 지역에 감행하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한 보복을 시도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멘호테프 2세의 노력과 달리, 그의 후손인 아멘호테프 4세는 모세의 유일신 사상에 영향을 받아 그 또한 유일신인 태양신 아톤

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작성된 아마르나 서신에서, 여호수아의 정복 과정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가나안 민족들의 내용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김성, “첫 번째 “역사적 출애굽”: 출애굽의 연대 추정과 히소스 추방”, 『구약논단』 1.1 (1995), 27-55.
- _____, “외국 땅의 통치자들: 히소스(Hyksos)에 관한 역사 전승 연구”, 『서양고대사연구』 16:2 (2005), 3.
- _____, “그리스의 출애굽 전승과 역사적 배경”, 『구약논단』 19.4 (2013), 290-317.
- Assmann, Jan, *Religion and Cultural Mem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_____, 「이집트인 모세: 서구 유일신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억」, 변학수 역, 서울: 그린비, 2018.
- Bright, John, *A History of Israel*, 4th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 Dicken, E. W. Trueman, ed., *From Genesis to Chronicles: Explorations in Old Testament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2005.
- Finkelstein, Israel and Silberman, Neil A., *The Bible Unearthed*, New York: Free Press, 2001.
- Geraty, Lawrence, “Exodus Dates and Theories”, T. E. Levy, T. Schneider, and W. H. C. Propp, eds., *Israel's Exodus in Transdisciplinary Perspective: Text, Archaeology, Culture, and Geoscience*, Heidelberg: Springer, 2015.
- Goedicke, Hans, “The Chronology of the Thera/Santorini Explosion”, *Ägypten Und Levante* 3 (1992): 60-61.
- Grabbe, Lester L., *Ancient Israel: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 New York: T & T Clark, 2007.
- Humphreys, Colin, and Lee W. Humphreys, *Miracles of Exodus: A Scientist's Discovery of the Extraordinary Natural Causes of the Biblical Stories*,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2003.
- Hoffmeier, James K., *Israel in Egypt: The Evidence for the Authenticity of the Exodus*

-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_____, “The Exodus and Wilderness Narratives”, B. T. Arnold and R. S. Hess, eds., *Ancient Israel's History: An Introduction to Issues and Sources*, 46-90.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 MacDonald, Nathan, “The Origin of ‘Monotheism,’” in *Early Christian and Jewish Monotheism*, ed. Loren T. Stuckenbruck and Wendy E. North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2004), 204-215.
- Miller, J. Maxwell and Hayes, John H.,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Philadelphia: Westminster, 2006.
- Na'aman, Nadav, “Habiru and Hebrews: The Transfer of a Social Term to the Literary Sphere”, *JNES* 45:4 (1986): 271-288.
- _____, “The Exodus Story: Between Historical Memory and Historiographical Composition”, *JANER* 11 (2011): 39-69.
- Petrovich, Douglas, “Amenhotep II and the Historicity of the Exodus-Pharaoh”, *TMSJ* 17 (Spring 2006): 81-110.
- Provan, Iain W., Long, V. Philips, and Longman III, Tremper,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Redford, Donald B., *Egypt, Canaan, and Israel in Ancient Tim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1.
- Steinmann, Andrew E.,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Book of Judges”, *JETS* 48:3 (2005): 491-500.
- Yadin, Yigael. “The Transition from a Semi-Nomadic to a Sedentary Society in the Twelfth Century B.C.” In *Symposia Celebrating the Seventy-Fif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00-1975)*, edited by Frank M. Cross, 57-68. Cambridge, MA: ASOR, 1979.

검색어

출애굽기 연대 가설, 아멘호테프 2세, 아케나톤, 안 아스만

[ABSTRACT]

Theories of the Date of the Exodus: Arguments for Association with Amenhotep II

In-Chol Yang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hypothesis regarding the date of the Exodus is related to the 18th dynasty's Amenhotep II (1427-1400 BCE) in the 15th century BCE. It suggests that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Exodus within the Israelite community is a recollection of escaping the oppression by Thutmose III and his successor, Amenhotep II. First, the biblical texts related to dating (Judg 11:26; 1 Kgs 6:1) will be analyzed. Then, the 15th century BCE hypothesis, the 13th century BCE hypothesis, and the minimalist scholars' claims regarding the date of the Exodus will be introduced. This essay aims to argue, contrary to the minimalist claim that the memory of the Exodus tradition contains historical memories of Egypt from the 7th century BCE, that it is related to the 15th century BCE Egyptian dynasty. Based on the study of Egyptian historical texts, I argue that the Israelites escaped from Egypt through the monotheistic YHWH of Moses and that this salvation history of the Israelites may have caused significant trauma to the Egyptians of the 15th century BCE. This memory might have laid the groundwork for the formation of monotheism during the era of Amenhotep IV, also known as Akhenaten, a descendant of Amenhotep II.

www.kci.go.kr

key words

Theories of the Date of the Exodus, Amenhotep II, Akhenaten, Jan Assmann

투고일: 2024년 05월 11일

심사일: 2024년 07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8월 12일

www.kci.go.kr